

“ 지배구조 개편 가장한 정몽구 일가 사익 추구 꾀수 ”

현대차지부, 글로벌스-모비스 합병안 비판... “지부 동의 없는 현대모비스 분할, 합병은 단협 위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허부영)가 3월 29일 현대자동차그룹이 28일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했다. 지부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현대차 정몽구 총수 일가의 회사기회 편취와 사익추구를 위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결사반대 견해를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그룹이 28일 발표한 현대글로벌스와 현대모비스 모듈AS 부품 부문 합병안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의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 같은 시도는 글로벌스의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주가 상승을 유도해 매각하기 위한 수순이며, 글로벌스 최대주주인 정의선 부회장에 불법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지부는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편이 황제경영 철폐와 재벌개혁의 출발점이 되어 한다”라며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회사 기회 편취와 사익추구로 재차 귀결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청와대 등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 당국은 현대차 재벌



의 사익추구를 위한 순환출자 개편 시나리오에 강력히 대처하고 규제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월 28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벌스의 이사회를 각각 열었다.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회사를 투자-핵심부품 사업 부문과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으로 인적분할 했다. 현대글로벌스 이사회는 모비스의 인적분할로 분리한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을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벌스 지분 23.29%를 매각한 돈으로 기아차가 보유한 16.9%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해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현대제철 5.7% 현대글로벌스 0.7%의 지

분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매입한다고 밝혔다. 정몽구 회장 부자가 현대모비스 지분 최대 29.92%를 확보해 대주주로 현대차그룹을 지배한다는 시나리오다.

인적 분할된 현대모비스 투자-핵심부품 사업 부문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벌스를 지배하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그림이다.

현대모비스에서 인적분할 하겠다는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은 2000년 2월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지부 동의 없이 현대모비스에 일방 합병한 부문이다. 현대차지부는 현대모비스가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을 분리하면 원래 지리인 현대자동차에 합병하는 게 정상 절차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현대차 그룹이 노조 동의를 얻지 않고 현대모비스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을 현대글로벌스에 합병하면 현대차 단체협약 39조(승계 의무), 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41조(신기술도입 및 공장 이전, 기업양수, 양도)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지부, 유성기업지회 승리할 때까지 함께 싸운다

허부영 지부장의 아름다운 고백, “원청사 지부장으로선 원죄의식 있다”

허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유성기업지회를 찾아가 유성기업 노조파괴 분쇄 8년 투쟁이 승리하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도성대 아산지회장은 “유시형 회장이 형을 미치고 곧 풀려난다”라며 “올해 어떻게 해서든 유성 투쟁을 마무리 짓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도성대 지회장의 소개로 총회 연단에 선 허부영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유성기업 원청사 지부장으로선

원죄의식이 있다고 고백했다.

허부영 지부장은 “유성기업지회가 쟁취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투쟁으로 함께 지키지 못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노조의 많은 사업장이 반쪽짜리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돌아봤다.

허부영 지부장은 “8년 동안 처절하게 벌인 유성지회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도록 끝까지 연대 투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허부영 지부장이 투쟁기금과 함께 연대 투쟁의 상징으로 현수막을 여러 장 갖고 오셨다. 유성기업의 원청인 현대차의 지부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투쟁은 유성 자본을 압박할 것”이라며 “올해 꼭 8년 투쟁을 마무리 짓자”라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